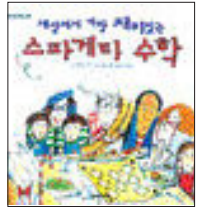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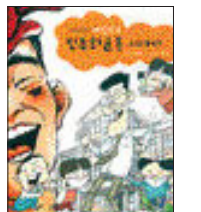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파게티 수학 = 미국의 수학교육전문가 매릴린 번스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펴낸 책. 8개의 식탁과 32개의 의자가 마련된 스파게티 파티에 초대받은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식탁배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의 개념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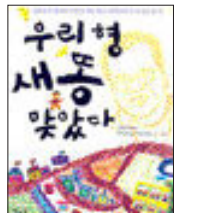
〈청아람 미디어·8천500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이야기 =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가 1945년 해방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만화로 펴낸 역사교양 만화책이다.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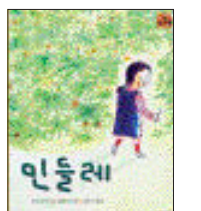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9천500원〉

▲우리형 새동네 맞았어 = 삼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이 5년동안 가르친 아이들의 시를 가려 뽑은 동시집. 밥 먹을 때도 풍서는 우리집 소, 온 동네 다 구경하고 다니는 노란새 꼬꼬라 등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눈에 비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피리새·8천원〉

▲민들레 =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 썼다. 다양한 관계의 그림 속에 감춰진 관심과 배려를 가진 보물을 마치 숨은 그림찾기를 하듯 즐겁게 만날 수 있다.



〈웅진주니어·8천원〉

▲큰애기 복순이 =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굴곡과 모순을 겪은 수민이 할머니의 큰애기(시집갈때가 된 여자아이) 시절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그린 동화.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 권할만하다.



〈문학동네·9천500원〉

대한민국, 왜 '명품'에 열광하는가

... 럭셔리 코리아 김난도 지음

지난해 유통업계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까짜 스위스 명품 시계 사건'이었다. 원가 6만~300만원짜리 시계를 무려 600만~1억원으로 부풀려 판매한 이 사건은 일부 부유층의 명품에 대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최근에 불거진 14만원짜리 구제 지우개, 33만원짜리 루이비통 필통을 쓴다는 강남역 초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명품'으로 불리는 사치품들을 둘러싼 소비 행위가 다양한 논란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호사가 아니라 대한 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펴낸 '사치의 나라-럭셔리 코리아'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사치의 유형과 본질을 고찰, 소비자들의 사치에 대한 열망을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책이다.

저자는 사치의 욕망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이유로 사치열풍을 소비자 개인의 윤리문제로 파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욕망은 사회적 산물이고 대한민국 소비자의 사치 욕망 역시 문화, 역사,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애호가 인터뷰 통해 알아 본 사치의 유형·본질·열망 고찰

저자는 월 가계 소득 1천만원 이상의 상위층을 비롯, 10대 여학생, 중산층 수준의 20대 여성 등 명품 애호가 12명의 심층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1부 '사치 소비의 심리학'에서 사치품이 갖는 상품으로서의 특징과 가격 구조 등에 대해 살펴본 저자는 2부 '사치 소비의 유형'에서 '사치'를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저자에 따르면 전통부자의 2세, 벤처 사업가, 연예인 등으로 대변되는 '과시형'은 명품을, '지위의 대리물'로 생각한다. 열등감이 강한 중산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시형'은 부유층의 '무시'를 두려워하고 '나라고 못할 게 없다'는 방식으로 사치품을 소비한다. 변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에서 나타나는 '환상형'은 초라함을 느끼지 않기 위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등장하는 명품 광고는 일반인들의 사치 욕망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해 '일할만 장만'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층의 특징인 '동조형'은 '유행이니까, 다들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움직인다. 사치의 유형은 하나지만 결과는 하나로 수렴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바로 '중독'이다. '명품을 하나만 사고 안 사겠다. 이게 안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게 된다'라는 한 인터뷰 대상자의 말이 이를 잘 증명한다. 3부 '사치 관하는 사회'는 소비자의 욕망을 부추기는 제조 회사의 광고 전략, 유통사들의 VIP 마케팅, 잡지 등 대중매체의 과급효과, 외상을 가능케 한 신용카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다. 마지막 장 '사치에서 삶으로'에서 저자는 개개인의 합리적인 소비 노력과 함께 소득 불균형 해소, 사치품 광고 규제, 소금 이외의 여가 문화 기반 조성 등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사치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창·1만1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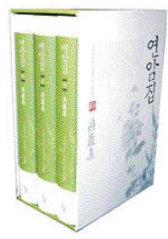
박지원 한시 '해인사' 등 40여편 첫 소개

연암집 김명호 지음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로 꼽히는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1737~1805)의 문집인 '연암집'(전 3권) 완역본이 출간됐다. 남북한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책은 지난 1932년 활자본으로 간행된 박영철의 '연암집'을 텍스트로 산문 237편과 한시 42수의 주요 이본을 대조, 원문을 철저히 검토해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필요한 주해를 더했다. 특히 198행에 달하는 장편 한시 '해인사'를 비롯한 40여편의 한시는 처음 소개된다.

한학의 대가로 불린 신호현(1914~1993)씨의 구술 '연암집' 국역 초고를 바탕으로 제자인 김명호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가 수정·가필하고 완성했다. 지난 2005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나온 '국역 연암집'(전 2권)이 일반 독자에 맞게 1년 간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출간된 것이다. <돌베개·각 권 2만5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시화 통해 본 중국 역사의 전통성

시와 그림으로 읽는... 이은상 지음

시와 그림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상명대 한중문화연구소 이은상 교수의 '시와 그림으로 읽는 중국역사'는 갑골문부터 청나라 화가 석도의 그림까지 시화(詩畫)를 통해 중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살피고 있다. 기원전인 상나라 때 활동한 정인(貞人)들은 거북의 뼈에 열을 가해 그 갈라진 꼴로 신의 생각을 파악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나라의 사관으로 이어진다. 사관은 하늘의 마음을 파악했다. 정인과 사관을 이어받은 이들이 바로 문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책은 '중국 문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하늘의 마음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했던 문인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일은 중국 역사를 추적하는 일과도 일맥상통한다. 저자는 중국 역사의 시대적 흐름 외에 시와 그림의 예술적 가치의 의미도 놓치지 않고 있다. <시공사·1만4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이혜화 '책, 꽃만큼 아름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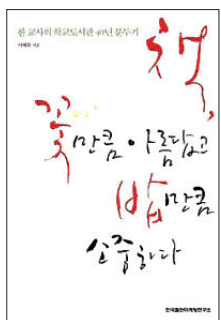
나는 논어를 비롯한 고전을 즐겨 읽으며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은 기억해 두었다가 가끔 인용하기도 한다. 최근 접하게 된 '한 교사의 학교도서관 40년 분투기'라는 부제가 달린 이혜화님의 '책, 꽃만큼 아름답고 밤만큼 소중하다'(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라는 책은 학교 경영의 사례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저자가 대학을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고 독서를 통해 지적 갈증을 해소하면서 교사가 된 과정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학교를 경영하면서 만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며 수준별 개별화 학습의 최상위 맞춤형 독서라는 신념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변모시키고 독서교육이 뿌리내리게 한 실천적 사례는 책의 제목처럼 가슴에 와 닿는다.

"학교에 나무를 심자, 꽃을 가꾸자,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고 소금도 뿌리자, 컬러 펜스로 화단과 운동장을 두르고 장미를 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련된 교표를 만들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육의 이미지화 작업도 하자, 학교의 중심에 있는 교무실을 학교도서관으로 내주자."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학생,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았던 학교가

독서와 삶을 하나되게 하자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로, 주민들에게 배척 받았던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이 책의 화두라고 본다. 나는 오랜 세월 교직에 있으면서 좋은 교육 공간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 교육환경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윈스턴 처칠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만지고 쓰다듬으며 쳐다보기만이라도 하라"고 충고했다면,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아예 책다미로 만들자고 역설한 사람이 바로 저자인 듯하다. 사방면이 막대사탕까지 쥐여주며 책 읽는 공간으로 학생들을 유혹한 저자의 행동을 극성맞다고 해야 할까?

'문질빈빈(文質彬彬)'이라 했다. 문(文)이 형식이라면 질(質)은 본질을 의미한다. '겉모양과 아름다움과 속내가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는 말이다. 도서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질 좋은 신간을 끊임없이 공급해 바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잠을 자듯, 삶과 독서를 하나 되게 꿈꾸었던 사람이 '독서 전도사'인 저자였다.

나는 앞으로 독서릴레이 운동, 학부모독서토론회 등 독서관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까지 참여하는 '빛고을 독서운동'을 펼쳐 의·예향인 우리 광주를 골목마다 책 읽는 소리가 나는 '책 읽는 고을'로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고운 말씨가 오가고 음악이 흐르는 청각적으로 아름다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로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만들고자 마음을 다잡으며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시몬스침대 광주 금남로점 OPEN advertisement with images of beds and promotional text.

방수 (Waterproofing) advertisement for Drimex Korea, featuring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